

# 1월 2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월 2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 제목                                               | 주요 내용                                                                                                                                                                                                                                                                           |
|--------------------------------------------------|---------------------------------------------------------------------------------------------------------------------------------------------------------------------------------------------------------------------------------------------------------------------------------|
| 뉴욕증시, 트리폴악재에 되밀려<br>[다우: 8,122.8pt<br>(-1.28%)   | 개장전부터 쏟아진 고용·주택 관련 지표들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뉴욕증시가 반등 하루만에 약세로 돌아섰음. 또 기술주를 대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부진한 분기실적과 더불어 대규모 감원을 발표한 점도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음.                                                                                                                            |
| 고용·주택지표 예상보다 더 악화..경기 우려감 자극                     |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와 주택경기 관련 지표들은 예상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17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전주대비 6만 2,000명 증가한 58만 9,000명(계절조정)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54만3,000명)를 크게 넘어설 뿐만 아니라 1982년 11월 이래 최대 규모를 경신했음.                                                                       |
|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주 하락주도                                 |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분기실적이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평가로 11%가 넘는 급락세로 마감했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비용절감을 위해 전체 인력의 5.5%인 5,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음. 세계 최대 인터넷 경매 업체인 이베이(eBay)도 부진한 실적발표로 12%의 하락세를 기록했고, 의료정보 제공업체인 이클립시스(Eclipsys) 역시 분기실적이 기대치에 못미쳤다는 소식으로 30%에 가까운 급락세로 장을 마쳤음. |
| 은행주 반등 하루만에 다시 급락                                | 전날 급반등세를 보였던 은행주들은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음. 메릴린치 인수비용 급증으로 미정부로부터 추가적인 구제자금을 지원받은 BoA가 다시 14%대나 급락했음. BoA는 이날 메릴린치 CEO 출신인 존 테인 글로벌뱅크 헤드를 전격 해임함으로써 추가 구제금융을 둘러싼 내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음.                                                                                                        |
| 국제유가 장중 6%대 급락후 반등<br>[WTI: \$43.67<br>(+\$0.12) | 국제유가 장중 낙폭을 줄이고 반등세로 장을 마쳤음.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한 때 6% 이상 급락하기도 했음. 그러나 감소 기대감이 나오면서 유가는 반등세로 돌아섰음.                                                                                                                                                            |
| MS,노키아 충격..유럽 증시 나홀재 하락                          | 유럽 주요 증시가 22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실적 악화 및 감원 발표에 직격탄을 맞고 나홀재 하락세 탈출에 실패.                                                                                                                                                                                                          |
| 중도 경기 급강하... 올 8%성장 '암운'                         | 지난해 4/4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5%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가 가파른 내리막세를 타고 있음.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전반에 걸쳐 개선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 중국 정부가 내놓은 올 8% 성장 목표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                                                                                                                         |

| 제목                                   | 주요 내용                                                                                                                                                                                                                                                 |
|--------------------------------------|-------------------------------------------------------------------------------------------------------------------------------------------------------------------------------------------------------------------------------------------------------|
| 美, 日·中과 환율전쟁<br>조짐..."시장개입 말라"<br>경고 |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지명자는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변동환율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일본의 환율 개입에 반대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통화가치가 시장 기능에 따라 결정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임. 가이트너는 이와 함께 중국의 환율 정책에도 우려를 보임.                                               |
| 대기업 구조조정 사정권..부실화 조기차단               | 건설·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 불문, 대기업들도 금융당국 구조조정의 사정권에 들어갔으며, 금융당국이 44개 그룹에 대한 유동성을 점검하기 시작하면서 부실 징후를 보이는 대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 워크아웃 건설사 신용등급 `하향검토` 대상              | 신용평가사들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대상` 판정을 받은 건설회사들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 22일 한신정평가는 삼호의 기존 기업신용등급과 회사채 신용등급(BBB+)을 `등급감시(하향검토)` 대상에 등록했다고 밝힘. 기업어음(CP) 등급(A3+)도 등급감시(하향검토) 대상에 올림.                                                                           |
| KT, 2008년 4Q 영업이익 54.5% 감소           | KT의 2008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54.5%나 감소. KT는 23일 4/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2조 8,753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54.5% 줄어든 836억원에 그쳤고 순이익 계정은 26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 2008년 4분기 매출은 전화수익과 LM수익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매출의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54.5% 감소한 836억원을 기록. |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